

김수현-안소희 결혼설 "대응할 가치 없는 허위"

배우 김수현과 안소희가 결혼설에 휘말렸다. 이들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7일 "대응할 가치 없는 허위"라며 일축했다. 설은 중국에서 먼저 시작했다.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시나닷컴은 6일 '김수현과 안소희가 4월 결혼한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소속사는 "중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사실인양 기사화됐다"고 밝혔다.



MC몽, 16일 깜짝 컴백

디지털 싱글 '반창고' 발표...감성 힙합



MC몽이 2월 중 깜짝 신곡을 발표한다. 7일 가요계에 따르면 MC몽은 16일 디지털 싱글 '반창고'를 발표한다. MC몽의 신작은 작년 11월 발표한 7집 'U.F.O.' 이후 3개월 만이다. '반창고'는 MC몽이 만든 감성적인 힙합곡으로, 허각이 피쳐링 아티스트로 참여했다. MC몽의 슬픈 랩과 허각의 애절한 목소리가 조화를 이룬 노래로 알려졌다. MC몽은 신곡을 낼 때마다 음원차트에서 높은 성적을 거뒀다. tvN 드라마 '도깨비' OST의 위세가 여전하고, 블라바와 자이언티 등 강자가 버티고 있는 음원시장에서 이번 신곡이 얼마나 힘을 발휘할지 관심이 쏠린다. 비슷한 시기에 방탄소년단과 트라이스도 신작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음원차트 혼전도 예상된다. MC몽은 이번에도 신곡을 위한 방송 출연 등 별도의 홍보 활동은 하지 않는다. MC몽은 병역기피 혐의에 대한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 처음 발표한 6집 '미스 미 오어 디스 미'(2014)부터 지금까지 방송에 출연하지 않고 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최순실·사드 내우외환...가요계 '행사 빙하기'

국정 농단 사태에 움츠러든 사회 분위기 한한령 때문에 중국 한류 행사도 사라져

행사 출연료가 주 수입원인 케이팝 가수들이 '내우외환'에 빠진 채 극심한 빙하기를 맞고 있다. 안으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움츠러든 사회 분위기 속에 행사 무대가 크게 줄었고, 밖으로는 한류 최대 소비국으로 떠오른 중국이 한한령(한류 금지령)으로 문을 잠그면서 관련 무대가 사라졌다. 가요계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돌파구도 보이지 않는다며 더욱 답답해하는 분위기다.

작년 가을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는 공연과 행사업계를 크게 위축시켰다. 국민적 충격과 각성은 콘서트나 축제 등 웃고 즐기는 자리를 자제하게 했다. 주말 촛불집회 시민이 늘어나면서 공연장으로 향하는 발길은 부쩍 줄었다. 국민의 공분이 극에 달했던 지난해 연말에는 예고된 무대가 열렸지만 흑자 공연은 드물었다. 크리스마스 and 새해를 들뜬 마음으로 기대 속에 맞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 인기 힙합가수의 소속사 관계자는 7일 "평소 공연이 적자를 내더라도 손익분기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연말 공연은 수천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객석을 비운

채 공연을 할 수 없어 막판에는 이벤트로 관객을 대거 초대해 채웠다"고 털어놨다.

새해에도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2월은 전국 대학가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시즌이라 행사가 많지만 움츠러든 분위기 속에서 예년만 못하다.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행사는 아예 멈춰버렸다. 행사전문 에이전시 메르센황규원 대표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지자체나 관공서 행사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그나마 기업체 행사도 연예인 초청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위기에 행사 기획사가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걸그룹 EXID의 소속사 바나나컬처 관계자는 "지난해 이맘때와 비교하면 행사 요청이 약 60%가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발라드 여가수 소속사 대표도 "평소 같으면 적어도 한 달 10건의 행사가 있었지만 2월 들어서는 1건도 없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외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 논란 속에 중국의 한류 금지령으로 현지 무대는 지난해부터 이미 사라졌다. 스타가 직접 출연하지 않더라도 한류 관련 행사라면 수천 관객이 모이곤 했지만 이제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당분간 중국시장은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기획사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장사리전투' 시작부터 잡음

할리우드 톱스타 제사가 알바 섭외 추진 시나리오조차 전달 안돼...배급도 불투명

지난해 700만 흥행작 '인천상륙작전'의 후광효과를 얻으려는 마음이 앞선 탓일까. 제작 추진 중인 영화 '장사리전투'가 촬영 전부터 잡음을 내고 있다.

'장사리전투'(감독 김유진·제작 태원엔터

테인먼트)가 할리우드 톱스타 캐스팅을 유심 내다 논란에 휘말렸다. 이달 초 제작진이 '제사가 알바를 캐스팅하겠다'고 적적 알리면서 기대를 증폭시켰지만 정작 시나리오조차 전달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장사리전투'는 1950년 9월 경북 영덕에서 학도병들이 활약한 장사 상륙작전을 소재로 한다. '인천상륙작전' 제작진이 기획한 '한국전쟁 3부작' 중 두 번째 영화다.

제작진은 '인천상륙작전' 당시 할리우드 스타 리암 니슨 캐스팅에 성공해 상당한 마케팅 효과를 누렸다. 이번 제사가 알바 캐스팅 역시 같은 효과를 노린 전략으로 보이지만 지나친 의욕으로 논란을 키웠다.

영화의 시나리오도 최근에는 마무리됐다. 제작진은 주인공 역할을 한창 추가 상송 중인 20대 스타에게 제안한 상태. 아직 응답을 받지 않지만 또 다른 출연진을 섭외하는 과정에서는 마치 스타들의 대거 출연을 알고 있기도 하다.

제작진은 또 올해 4월 촬영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전쟁 소재로 상당한 제작비가 투입되는 블록버스터이지만, 현재 영화의 투자배급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촬영까지 불과 2~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시간은 촉박하다.

제작진은 '인천상륙작전'을 170억원 규모의 대작으로 키운 투자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와 투자 여부를 논의 중이다. 물론 이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CJ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7일 "투자배급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gol1024@donga.com

연예뉴스 스테이션

'급성구획중후군' 문근영 3차 수술 '회복중'



급성구획중후군 진단을 받은 연기자 문근영이 7일 3차 수술을 받았다. 이에 따라 주연해온 연극 '로미오와 줄리엣'의 대구와 안동 공연은 취소됐다. 이날 소속사 나무엑터스는 "문근영이 3차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다행히 좋은 예후를 보이고 있으나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근영은 오른쪽 통증을 호소한 뒤 2일 급성구획중후군 응급수술에 이어 4일 추가 수술을 받았다.

김준수, 매각 호텔 종업원 임금 체불 논란

9일 군 입대하는 가수 김준수가 구설에 올랐다. 김준수가 투자한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모 호텔이 최근 매각되면서 종업원 임금 체불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호텔은 김준수가 투자했다는 점에서 국내의 한류 관광객 유치 효과에 대한 기대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 세계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수의 소속사 측은 "그가 해당 호텔을 직접 경영한 건 아니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영화인 1052명, 서병수·김세훈 사퇴 촉구

1052여명의 영화 관계자가 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서병수 부산시장과 김세훈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의 사퇴 및 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블랙리스트 대응 영화인 행동'은 이날 '문화계 블랙리스트 부역자 사퇴 및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영화인 1052인 선언'을 냈다. 이들은 "청와대와 문체부가 주도한 블랙리스트를 배제시키기 위해 영화 진흥사업을 편법 운영하는 김세훈 영진위원장과 청와대의 지시로 부산국제영화제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이용권 집행위원장을 정치적으로 탄압한 서병수 시장을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서 시장 등을 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사임당' 발등에 불...시청률 사수작전

방송 3회 만에 시청률 급락...재편집 단행 산만한 전개 개선·본격 성인 연기자 등장

떨어진 시청률을 다시 올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 방송 3회 만에 시청률이 하락하며 흥행 '빨간불'이 켜진 SBS 수목드라마 '사임당, 빛이 일기'(사임당)의 제작진이 재편집을 단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에 나섰다.

'사임당'은 100% 사전제작 드라마로 지난해 9월 이미 촬영을 마친 상태. 제작진은 시청자 반응을 고려하며 이야기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편집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시청률은 급락했다. 첫 회 15.6%(닐스코리아)로 시작해 16.3%→13%→12.3%까지 낮아지면서 향후 분량과 관련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다.

제작진은 최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시청자가 지적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편집을 하기로 했다. 시청 흥미를 반감시킨 요인으로는 과거와 현재가 '퇴비우스 피'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설정을 표현하기 위한 극적 장치를 너무 추상적으로만 표현했다는 점이 꼽혔다. 또 이영애와 송승헌의 전생과 아역 시절을 보여주기 위해 2회 분량으로 이야기를 늘어뜨리면서 몰입을 방해했다는 지적도 많다.

이에 제작진은 8일 5회 방송분부터 재편집해 더욱 짜임새를 높이는 작업에 나섰다. 불거린 리도 중요하지만 이야기 전개에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면은 과감히 걷어내고, 사건이나 이야기를 재배치해 구성했다. 배경음악도 첨



SBS 수목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

삭했다. 이후 전체 분량에 대해서도 재편집한다. 드라마가 총 30회로 기획된 만큼 끝까지 긴장감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아역 분량의 경우에는 당초 2회분으로 촬영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제작진은 이영애와 송승헌, 오윤아 등 성인 연기자들의 본격적인 활약에 기대를 거는 눈치다.

드라마 밖에서도 시청률 사수작전을 벌이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설정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초반 4회분을 드라마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시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8일 낮 12시50분부터 2시까지 1~4회 내용을 압축해 '사임당, 빛의 일기-스페셜'을 방송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예능왕국' 명성 복원 노리는 KBS

'살림하는 남자들' 편성 변경 전진 배치 '언니쓰' '하숙집 딸들' 정착 강한 의지

KBS가 2017년 '예능왕국 명성 복원'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일부 예능프로그램을 전진배치하고 더욱 공격적인 프로그램 전략을 펼치고 있다.

KBS 예능국이 지난달 16일부터 5일 동안 진행한 사내 업무계획 보고를 보면 그 핵심은 밤 9시대 프로그램 혁신과 시즌제다. 이와 함께 새롭게 선보이는 '하숙집 딸들'도 '전략상품'으로 높은 기대를 내걸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시즌2로 재편집하는 '살림하는 남자들'의 편성 변경이다. 종전에 화요일 밤 11시에 방송하던 것을 22일부터 매주 수요일 밤 9시로 전진배치한다. 사실 시즌1은 예능프로그램에서 접하기 힘든 김승우를 필두로 김정태, 봉태규 등이 출연했지만 그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며 지난해 11월 방송 이후 평균 3%(닐스코리아)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향후 잠재력을 인정받으며 편성을 바꿨다. 시즌2의 새 멤버 백일섭이 '결혼을 졸업'한다는 '졸혼' 생활을 보여줄 예정이어서 기대감을 높인다.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내와 함께 각자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모습을 담아낸다.

10일과 14일 밤 11시에 각각 첫 방송하는 '언니들의 슬램덩크 시즌2'와 '하숙집 딸들'을 통해서도 여성 중심 예능프로그램을 정착시키겠다는 각오다. '언니들의 슬램덩크' 시즌1은



KBS 2TV '살림하는 남자들'

2005년 '해피선데이-여걸시스' 이후 10여년 만에 여성 출연진의 힘을 재확인시키며 시즌2가 가능성을 높였다. 제작진은 시즌1 아이템 중 가장 큰 반응을 얻은 걸그룹 프로젝트 '언니쓰'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연이은 흥행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언니들의 슬램덩크'의 성공은 '하숙집 딸들' 제작의 발판이 되기도 했다. 이미숙, 이다해, 박시연 등 대부분이 연기자인 출연진은 "하숙집의 모녀"라는 설정으로 드라마 장르와 접목하며 리얼리티 포맷과 차별화할 예정이다.

KBS 김진홍 예능국장은 "'살림하는 남자들'은 가족이 함께 시청하며 공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대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이어 "'언니들의 슬램덩크'로 재확인한 여성 중심 예능 프로그램의 힘이 '하숙집 딸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술미 기자 bsm@donga.com

음악 랭킹

자료:멜론 1월 30일~2월 5일 1위 음악 정보보기

순위	곡명	아티스트
1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에일리
2	노래	Zion.T
3	Complex (ft. GD)	Zion.T
4	Beautiful	Crush
5	Stay With Me	찬열, 편지
6	좋다고 말해	불빨간사춘기
7	미안해 (ft. 빈지노)	Zion.T
8	I Miss You	소유
9	기다렸다 가	다이아믹 듀오, 헨
10	에라 모르겠다	BIGBANG

편집 | 고창일·김정호기자